

EUNSEOK CHURCH MATHETES

그의 향기로

신유식

차가운
바람 머금은
가을 햇살은
파란 잎사귀
빨강고 노랗게
고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온 세상
향기로 물드는데
내 영혼도
생명 머금은
하늘빛으로
옛 마음
새롭게 갈아입고
그의 향기로
슬며시 물들어 가네.

제24권

43

2016.10.23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성전과 성전

겔 40:44-47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 진리라고 합니다(요 17:17).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아십니까? 성경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14:6)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진리를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아는 신자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자로 사는 것일까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선포하신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은 비참한 저주 아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신자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다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이 운명까지 분명히 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미래, 세상의 전부를 알고 있는 신자가 왜 세상에 대해서 항상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리를 알지 못한 이방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허구일 뿐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피 흘려 죽으신 실제적 십자가가 아니라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증표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실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구에게든 십자가가 허구가 아니라 실상이라면 그에게 십자가는 큰 권세로 자리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로 자리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 즉 자기 손으로 이룬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이 생명이 되는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세상의 재물이 복으로 다가오고, 세상의 권세를 힘으로 여기면서 믿음의 세계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복과 권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속한 신자는 세상의 것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기에 세상을 권세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신다고 여기신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로 존재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진리를 안다는 막연한 이해로만 버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에 진리가 없으면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속에 진리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로만 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열심과 능력으로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만 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세계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세계를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깥쪽에서 안들로 갑니다. 안들은 바깥쪽의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과 마주 보는 문이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의 문과 안들의 문 사이의 거리는 백 척, 52미터가 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에스겔이 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천사가 측량한 모든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의 성전과 다릅니다. 구조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번제물을 썰는 곳인 방이 있고, 39절에서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잡는 상이 각기 둘씩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안들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 있고, 46절에서는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성전 앞에 제단이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번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장, 레위 후손, 사독 자손, 제단, 이 용어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너진 옛 성전에서의 제사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의문이 되는 것은 에스겔이 본 성전에 왜 무너진 옛 성전의 제사에 필요한 것이 등장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모든 제사가 실패했고, 제물을 잡아 제단에서 피 흘리며 희생 제물로 바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행위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성전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통용되는 것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실패한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서는 솔로몬 성전에서처럼 제물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의 제사가 없다면 제사장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 10:15-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사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가 완성되었기에 번제와 속죄제는 주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히 10:8).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

하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히 10:11-14).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솔로몬 성전에서 행해지던 반제, 속죄제, 속건제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드릴 것처럼 그러한 제사로 죄를 없애는 하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필요 없으니 제단이나 제사장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이 본 성전에 그 모든 것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옛 성전에서 행해지던 것들이 다시 언급되는 것은 실패한 제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옛 성전에서의 제사가 다시 행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나는 왜 실패 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을 뜻합니다. 자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패를 알지 못하면 자연히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에 옛 솔로몬 성전의 것이 있는 것은 인간의 실패를 보게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 안에서 인간이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자기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고 진리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학 1: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와가 말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삶의 기반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서 성전을 짓게 되면 자신들의 생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성전을 건축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법궤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언제 어떻게 성전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법궤를 가져갔을 것이라는 등의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궤가 사라진 내막이 아니라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것입

니다.

이것은 분명 성전 제사의 재개를 위해 성전 건축을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에게 재물이 있든 성전이 있든 결론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성전 건축을 미룬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죽어야 할 존재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비록 성전의 의미를 오해했다 할지라도 성전을 그들의 생명으로 알았다면 가장 먼저 성전부터 건축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없이는 죽은 존재일 뿐이라고 여겼다면 당연히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보다는 생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심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까 생명입니까? 당연히 생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보다는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은 돈이 있 해도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죽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본질을 죽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야 비로소 생명을 향해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먼저 보게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과 실패를 자각하고 실감하지 않고서는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생존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는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스겔의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 하나 잘려나가는 갈등과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잘려나가고 그리스도만 남을 때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두기를 힘쓰게 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자신의 죽음을 안고 주를 찾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죽음이 아닌 생존을 안고 주를 찾는 것은 신앙이 아닌 종교입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 편안하고 부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리스도를 진리로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인간은 그것으로 영원한 실패와 죽음에 간하게 됩니다.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을 표면적으로 해석하여 성전 건축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뭔가 맞지 않는 모순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게 될 것

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건물을 성전으로 세우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서 인간이 무엇을 하고 어떤 정성을 다하여 바치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에스겔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생존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가능하면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삽니다. 말씀 안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죽음이라는 저주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를

알게 된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여김 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앞에서 사람들은 헌금을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로 인정되어 그 보상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인간은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존 재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자신의 본질에 눈을 뜨게 됨으로 지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며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 곧 성전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죽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그 속에 있어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

벧전 5:6-11

만남 84강 10. 2일 설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알게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를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다 해도 세상 일로 인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사 염려하는 일이 해결된다 해도 남은 인생동안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로 인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게 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기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다면 염려 없는 삶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

한 삶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 사랑이며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부를 염려 없이 산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진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세의 일로 여기는 구원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우선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7절)**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좋아합니다. 마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만 하면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께서 돌봐주신다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희망적이고 힘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고집한 채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평안하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일까요?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염려를 맡기는 것이고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돌봐주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 후에는 염려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후에도 염려되는 현실에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염려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도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평안 가운데 있는 신자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신자를 배경으로 합니다. 신자의 모든 고난은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로 인한 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염려는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있는 염려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의 기독교는 세상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기에 세상의 염려와 기독교인의 염려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든 기독교인이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독교인은 생존을 위해 힘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종교 문제일 뿐 염려로 인해 드러난 본질은 같습니다.

이처럼 생존의 문제와 염려에 매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신자에게 자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람은 생존의 문제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 생존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염려되는 일에 의한 심리적 고통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면 그 인생의 끝은 당연히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세상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자에게 가장 안심이 되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우리는 가장 잘되는 길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 받고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는 잘된 일입니다.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해도 그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는 잘된 일입니다. 병에 걸린 것이 잘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달게 되었다면 그것이 잘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람은 평안할 때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것에 관심을 둘 뿐입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면 죽음을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몸에서 죽음의 흔적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실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잘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주의 돌보심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받는 징계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나를 보게 되면 자연히 믿음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게 됩니다. 삶이 평안하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 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징계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나를 보게 하여 나의 나 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게 하고 대신 자기 자랑, 또는 자기에 대해 낙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 6: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입니까 아니면 의식주의 문제입니까. 누구에게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숨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으로 인해 감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목숨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며 목숨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주를 신뢰하는 것은 생존의 모든 문제가 주의 손에 있음

을 믿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마 6:33절은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더해주시는 은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염려가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를 돌보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은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과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벧전 5: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야곱의 장사

창 50:1-6

121강 2016. 10. 19일 설교

야곱은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5:26)는 말을 비로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야곱을 장사할 것을 허락합니다.

야곱이 굴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은 개인적으로 조상이 묻힌 곳에 장사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아들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까 굴이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까 배우지

않아도 된다면 신자가 배워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배워서 아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과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는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고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배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은 복음에 반발이 있고 복음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힘쓴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죽음이 당연한가를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은 아람의 시신과 함께 애굽에서 막벨라 굴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시각에서 보면 아람의 시신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될 것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아람은 구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신이 어디에 묻히든 구원의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유언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소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70일 동안 죽은 아람을 위해 곡을 합니다. 당시 애굽 왕을 장사할 때 70일을 곡했다는 말이 있음을 참고해 보면 아람의 장사를 거의 애굽 왕을 장사하는 것처럼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죽음을 그렇게 대우한 것은 애굽 총리인 요셉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죽은 아람을 위해 며칠을 곡했던 아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70일이 아니라 100을 곡했다 해도 죽은 아람과는 무관하고 아람의 아들들과도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약의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굽 사람인 죽음을 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시각에서 죽음은 단절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들에게 죽음 이후는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곡하고 장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아람은 몸은 죽었지만 죽음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언약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종교적 사고방식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은 아람에게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자리였고 영원히 거할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막벨라 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람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원한 것처럼 신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혜택은 영원합니다.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각에서는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것일 뿐이지만 언약을 믿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분명한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현실로 여기며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현재를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굽은 죽은 자로 애굽에서 나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출애굽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은 죽은 자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애굽의 열 번 째 재앙입니다.

출애굽은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살아난 자들이 출애굽 한 것입니다.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도 애굽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양의 피를 바탕으로 그것을 알아 했고 애굽에서 죽었어야 할 자신들이 어린양이 대신 죽음으로 살았다는 그 정신으로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육신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어린양의 피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믿음이 출애굽이고 자신의 힘과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부인되는 것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애굽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은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신이 받아줌으로 그 보상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신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애굽이 신을 섬기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 발버둥치는 자신의 모습에서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자신을 붙들고 있는 세상이라는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자각하면서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현실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이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행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행의 의미는 하나님이 붙들어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어가기 때문에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은 수호신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고 되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신자는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단지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자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교회소식

1.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산실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2. 11월 5일(토)에 은석교회 아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충북 청주에 있는 청남대이며 화비는 어른 1인당 2만원입니다.



꽃향유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30
수요일	7:30
주일학교	1:00

주일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독상기도 다 할 깨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35장
 교 독 문 22(시37편)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424장
 성경봉독 겔 40:44-47

● 성전과 성전(99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26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4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조규현 장로

주일오후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368장
 기 도 장정환 집사
 찬 송 195장
 성경봉독 마 7:13-14

● 믿음의 방향성(믿음87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59장
 주기도문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신원숙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창세기 강해 122강